

관동별곡(關東別曲) - 정철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금강산과 관동 팔경을 유람하며, 그 절승에 대한 감탄과 연군지정 및 애민 사상을 노래한 작품이다.

✓ 핵심정리!!

- * **갈래** : 가사(양반가사, 기행가사, 정격가사)
- * **연대** : 선조13년(1580년), 작자가 45세 때
- * **문체** : 가사체, 운문체, 화려체
- * **사상** : 유교의 충의사상과 도교의 신선사상
- * **운율** : 4음보 연속체, 3(4)·4조
- * **표현** : 감탄법, 대구법 생략법의 적절한 사용. 작자의 호탕한 기상이 드러남
- * **사상** : 유교 사상, 도교 사상
- * **출전** : 송강가사 이선본
- * **영향 관계** : 경기체가 안축의 <관동별곡> → 가사 백광홍의 <관서별곡> → 가사 송순의 <면앙정가> → 정철의 <관동별곡>으로 이어짐
- * **구성** : 서사 - 본사 - 결사
- * **의의** : 서정적인 기행가사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승화시킨 작품
- * **주제** : 관동 지방의 절경과 풍류
- * **관동팔경** : 청간정, 경포대, 삼일포, 죽서루, 낙산사, 망양정, 총석정, 월송정 또는 시중대

▣ 「관동별곡」 전체 구성

(1) 서 사 : 부임과 순력

① 부임(赴任)

창평(昌平) ⇨ 한양 ⇨ 평구역 ⇨ 흑슈 ⇨ 섬강·티악

- 은거 생활 • 성은에 • 양주 • 여주 • 원주-감영이 있는 곳
- 泉石膏肓 감격

② 순력(巡歷)

쇼양강(추천) ⇨ 동주(철원), 북관령 ⇨ 회양(淮陽)

- 연군지정·우국지정 • 연군지정·세사의 무상함 • 선정에의 포부

(2) 본 사 : 금강산과 관동 팔경 유람

① 금강산 유람

만폭동의 폭포 ⇨ 금강대의 선학 ⇨ 진혈디에서의 조망 ⇨ 기심디에서의 조망 ⇨

- 폭포의 장관 • 도선적 풍모 • 녀산 진면목 • 성현의 도 흠모, 공자의 고사
- 비유·감각적 • 셔호 넷 주인 • 우국과 충절

화룡소에서 감회 ⇨ 불명디의 12폭포 ⇨ 산영누

- 선정에의 포부 • 폭포의 장관, '망여산 폭포' • 신선 사상, 물아 일체
- 노룡에 비유

② 관동 팔경 유람

총석정 ⇨ 삼일포 ⇨ 의상티 ⇨ 경포 ⇨ 독서루 ⇨ 망양정

- 도교 사상 • 사선의 추모 • 일출의 장관 • 정밀의 미 • 객수 • 파도의 장관
- 기묘한 형상 • 우국지정 • 미풍 양속 • 연군지정 • 고래, 은산

(3) 결 사 : 도선적 풍류

- 망양정에서의 월출과 꿈 → 도선적 풍류
- 선우후락(先憂後樂)의 정신 → 선정에의 포부
- 달이 비치는 모습 → 임금의 은총

<p>㉠ 「관동별곡」 전체 구성</p> <p>1. 서사</p> <p>[1] 관찰사 부임</p> <p>[2] 관찰사 포부 : 연군지정(소양강, 삼각산), 우국지정(백발), 무상감(궁왕 대궐 터의 오작), 선정포부(급장유 풍채)</p>	<p>2. 본사① : 내금강 유람</p> <p>[3] 만폭동(폭포) : 무지개, 용의 초리</p> <p>[4] 금강대(학) : 호의현상</p> <p>[5] 진혈대(산봉우리) : 여산 진면목, 부용·백옥·동명·북극, 망고대와 혈망봉</p> <p>[6] 개심대(산) : 인걸(우국지정), 동산, 태산(호연지기)</p> <p>[7] 화룡소(연못) : 삼일우</p> <p>[8] 십이폭포(폭포) : 은하수, 실, 뱀</p> <p>[9] 동해로 가는 감회 : 새, 시냇물(감정이입), 정기·교각(위풍당당), 취선(풍류), 백구(물아일체)</p>	<p>3. 본사② : 관동팔경 유람</p> <p>[10] 총석정(정자) : 백옥루, 공수·귀부</p> <p>[11] 삼일포(포구) : 사선</p> <p>[12] 의상대(해돋이) : 상운, 육룡, 널구름, 히타</p> <p>[13] 경포대, 강릉(호수, 풍속) : 십리빙환, 홍장고사, 절효정문, 비옥가봉</p> <p>[14] 죽서루(태백산 경치) : 태백산 그림자, 왕정</p> <p>[15] 망양정(파도) : 고래, 은산</p>
<p>4. 결사</p> <p>[16] 동해안 달맞이 : 주렴·옥계, 백년화, 뉴하주</p> <p>[17] 꿈 속의 선연 : 진선, 복두성·창해수, 명월</p>		

㉡ 「관동별곡」에 나타난 심리적 태도

- ① 연군지정(戀君之情), 유교적 충의 사상
-昭昭陽陽江강 낙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
-三三峯角各山山 第一一峰봉이 허마면 뵈리로다.
-출하리 漢한江강의 木木覓觅의 다히고져.
- ② 우국지정(憂國之情 = 우국충정)
-孤고臣신 去거國國에 白백髮髮알도 하도 할샤.
-더 귀은 허터 내야 人인傑걸을 문들고자.
-아마도 널구름 근처의 머물세라.
- ③ 선정(善政) 포부, 애민 정신
-汲汲長長當當유 風風彩彩치를 고타 아니 볼 게이고
-陰陰崖崖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어스라.
-일이 도흔 世世界界 溜대되 다 뵈고져.
-이 술 가져다가 四四海海에 고로 논화, 億億萬萬 蒼蒼生生을 다 醉醉게 밍근 後후의
- ④ 회고의 정서, 무상감
-궁왕 대궐 터희 오작이 지지괴니, 천고 흥망을 아난다, 물으논다.
- 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겪는 내적 갈등
-왕명이 유히하고 풍경이 못 슬미니, 유희도 하도 할샤, 직수도 돌 디 업다.

 **작품 해설**

- 1 **江江湖호에 病병이 깊퍼 竹죽林林님의 누엇더니,**
자연 천석고황(泉石膏肓), 은서지인 전남 담양 창평(은유)
연하고질(煙霞痼疾)
-- 선조11년(1578) 정철은 동인의 공격으로 승지 벼슬을 내놓고 향리인 창평에서 3년을 지내게 된다.
☞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깊어 대숲(창평)에서 지내고 있는데
- 2 **關關東東 八팔百百리니에 方方面面을 맛디시니,**
강원도 지방 방면지임(方面之任)의 준말(관찰사의 소임)
☞ (임금님께서 나를) 800리나 되는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하시니,
- 3 **어와 聖성은은이야 가디록 罔망極극하다.**
☞ 아아! 임금님의 은혜는 갈수록 끝이 없도다.

1행-3행 :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받은 감격
<요지> 전라도 창평에서 은거하던 중, 임금의 은혜로 강원도 관찰사로 제수되었다.
(어구 풀이)
* **江江湖호** : 조정(朝廷)과 상대가 되는, 시인목객들이 은거하여 사는 시골. 자연의 대유법. 곧 전라도 창평
* **病병이 깊퍼** : 자연을 좋아하는 마음이 마치 고질병처럼 굳어짐 '천석고황, 연하고질'과 같은 말.
* **竹죽林林** : 대나무 숲. 작자가 은거하고 살던 담양은 마침 대나무로 유명한 고장이며 중국의 죽림칠현의 고사와 연관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은거지, 은둔지의 뜻(전남 담양군 창평면) → '자연'

- * 누엇더니 : 은거하고 있었더니
- * 關關東東 : 대관령 동쪽, 곧 강원도 지방의 통칭.
- * 方方面面 : '방면지임(方面之任)'의 준말. 관찰사의 소임.
- * 맛디시니 : 말기시니. (기)맛디다 -- 맛디시니: 맛(어근)+이(사동접미사)+시(주체높임선어말어미)+니(종속적 연결어미)
- * 聖성은이야 : 임금님의 은혜야말로 '이야'는 강세 보조사
- * 가디록 : 갈수록
- * 罔망極극하다: 한이 없다. 그지없다. 말로는 자연 속에서 묻혀 사는 즐거움을 중얼거리지만, 임금이 부르면 환호작약, 희희 낙낙하던 당시의 사대부, 관료들의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4 **延秋秋門문 드리드라 慶경會회 南남門문 바라보며,**

경복궁 서쪽문 드리드라(달려 들어가)

연추문으로 달려들어가 경회루 남쪽 문을 바라보며

5 **下하直직고 물러나니 玉옥節절이 알피 섰다.**

임금이 관직의 신표로 주던 옥으로 된 패

(임금님께) 하직하고 물러나니 관찰사의 신표가 앞에 서 있다.

6 **平평丘丘驛驛 말을 7라 黑흑水水슈로 도라드니,**

[부임 여정 ①] 양주

[부임 여정 ②] 여주

평구역(양주)에서 말을 갈아 타고 흑수(여주)로 돌아 들어가니,

7 **蟾蟾江江강은 어디메오, 雉티岳岳악이 여기로다.**

원주에 있는 강

[부임 여정 ③] 원주(감영이 있던 곳)

섬강(원주)이 어디인가, 치악산(원주)이 여기로구나.

4행-7행 : 강원도 관찰사 부임 여정

<요지>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받아 원주에 부임하게 된 여정을 서술 - 경쾌한 리듬감과 사건 전개 속도감

(어구 풀이)

- * 延秋秋門문 : 경복궁의 서쪽문. 영추문이라고도 함.
- * 드리드라 : 달려들어가, 성은(聖恩)에 대한 감격이 행동으로 나타난 말. (기)드리드라
- * 慶경會회 南남門문 : 경회루와 광화문
- * 下하直직고 : 웃어른께 작별 인사하고, '하직하고'의 '하'생략.
- * 玉옥節절 : 임금이 신표(信標)로 주던 것으로 관원이 출발할 때에 기표(旗標)로 하여 행렬의 앞에 세웠다.
- * 平평丘丘驛驛 : 양주(楊州) 동쪽 70리에 있었던, 춘천과 원주로 갈리어 가는 길목의 역.
- * 黑흑水水슈 : 여주 북쪽을 흐르는 한강상류의 하나인 여강(驪江)의 옛 이름.
- * 蟾蟾江江강 : 원주(原洲) 서남방 50리에 있는 한강 상류
- * 雉티岳岳악 : 원주 동쪽 25리에 있는 산. 여기서는 원주의 대유법으로 쓰임.

8 **昭昭陽陽江江 느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 → 연군지정(戀君之情)

[연상] 소양강에서의 감회(소양강→한강→한양(임금이 있는 곳))

소양강 흘러내리는 물이 어디로 흘러들어간단 말인가?

9 **孤孤臣臣 去거國國에 白백髮髮발도 하도 할샤.** → 우국지정(憂國之情)

외로운 신하 서울을 떠남

외로운 신하가 임금님 곁을 떠남에 있어서, 나라에 대한 걱정이 많기도 많구나.

10 **東東州州 밤 계오 새와 北북寬寬관亭亭명의 올라하니,**

철원에서 밤을 겨우 새워 북관정에 오르니,

11 **三삼角角山山 第第一一일峯봉이 何하마면 何하리로다.** → 연군지정(戀君之情)

북한산(임금 계신곳)

웬만하면

(임금님이 계신 한양에 있는) 삼각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가 웬만하면 보일 것 같구나.

12 **弓궁王왕 大대關關 터희 烏오鵲작이 지지괴니,**

옛날 궁예왕이 살았던 대궐 터에 까막까치가 지지괴고 있으니,

→

맥수지탄(麥秀之嘆:나라의 멸망을 한탄함)

13 **千천古古 興흥亡망을 아는다, 물으는다.**

너희들(까막까치들)은 먼 옛날의 흥망성쇠를 아느냐 모르느냐?

14 **淮淮陽陽 네 일흠이 馬초아 7틀시고.**

강원도의 지명과 한나라의 지명이 같음

회양이라는 이름이 옛날 중국의 지명인 회양과 마침 같구나.

15 汲급장당孺유 風풍彩치를 고택 아니 볼 계이고. → 급장유와 같은 선정(善政)을 베풀고자 하는
 한문제때 선정을 베푼 회양의 태수 沐민관(牧民官)으로서의 포부 選정
 을 베풀었던 급장유의 모습을 이제 다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8행-15행 : 관내 순력(巡歷)과 선정에의 포부
 <요지> 관내(춘천, 철원, 회양)를 순력하면서 연군의 정, 우국의 정, 선정에의 포부가 드러남
 (어구풀이)
 * 昭쇼陽양江강 : 춘천에 있는 강. 북한강의 상류.
 * ㄴ린 : 내리는. 흐르는. 'ㄴ린'을 음수음을 맞추기 위해 '-ㄴ-'를 생략한 형태.
 * 孤고臣신 去거國국 : 나라(서울)를 떠난 외로운 신하. 임금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신하. 점점 임금이 계신 서울에서 멀어지는 신하의 외로움을 드러냄으로써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충성심을 표현함.
 * 白빅髮발도 하도 할샤 : 백발이 많기도 많구나. 나라(임금)에 대한 근심이 많기도 많구나.
 * 東동州洲 : 철원의 옛 이름.
 * 계오 새와 : 겨우 새워.(기)새오다
 * 北북寬관亭亭 : 철원 북쪽에 있는 정자.
 * 올나흐니 : 오르니.(기)오르다
 * 三삼角각山山 : 서울 북쪽에 있는 북한산 인수봉의 세 봉우리를 이룸.
 * ㅎ마면 비리로다 : 웬만하면 보이겠구나. → 연군의 정(戀君之情)이 드러난 구절.
 * 弓궁王왕 : 태봉의 임금인 궁예를 높여 이르는 말.
 * 터희 : 터에, 터ㅎ(ㅎ받침체언)+의(처소 부사격 조사)
 * 烏오鵲작 : 까마귀와 까치. 즉 까막까치
 * 지지괴니 : 지지귀니.
 * 아논다. 몰은논다 : 아느냐, 모르느냐.(역사의 무상감을 드러냄)
 * 淮회陽양 : 강원도 땅이름인 동시에 중국 한나라 때의 땅이름. 중의법.
 * 네 일흥이 : 옛날 이름과 (명사)+이(비교부사격 조사)
 * 마초아 : 마침. 공교롭게. 동사 '마초다'에서 파생된 부사.
 * 古古시고 : 같구나. 곁(형용사 어간)+을시고(감탄형 종결어미)
 * 汲급장당孺유 : 한 무제(漢武帝)때의 직간신. 이름은 암. 장유는 그의 자. 무제가 그를 회양 태수로 좌천시켰으나, 거기서도 선정을 베풀어서 와치회양(臥治淮陽)이란 명성을 떨침. → 송강 자신을 급장유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음=>선정에의 포부.
 * 風풍彩彩 : 위풍 있는 모습
 * 고덕 : 다시(부사)

16 營營中中이 無무事스하고 時時節절이 三삼月월인 제,
 [유람 동기]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삼월임 — 자신의 선정 과시
 感感(지금의 도청) 안에 아무 일이 없고 시절이 마침 삼월인 때에,

17 花화川천 시내길히 楓풍岳岳으로 버더 있다.
 가을철의 금강산의 이름
 花화천 시내길이 금강산으로 뻗어 있다.

18 行행裝裝을 다 썰티고 石石逕逕의 막대 디퍼,
 여행할 때의 채비 돌이 많이 깔린 좁은 산길
 行행장을 다 펼쳐 버리고 돌길에 지팡이를 짚어,

19 百백川천洞洞 거티 두고 萬萬瀑瀑洞洞 드러가니,
 표훈사에서 마하연 아래까지의 계곡
 百백천동 길을 지나 만폭동으로 들어가니

20 銀은 古古 무지개, 玉옥 古古 龍龍의 초리, (아름답고 힘차게 쏟아지는 폭포의 장관 묘사)
 龍龍의 물줄기 龍龍의 물줄기
 은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처럼 생긴 폭포가

21 섯돌며 뿜는 소리 十십리리의 주자시니,
 十십리리에 깔려 있으니,

22 들을 제는 우레러니 本本는 눈이로다.
 천둥소리(원관념:폭포의 소리) 본 것은 원관념:폭포의 물보라
 本本를 들 때는 우렛소리더니 가까이 가 보니 눈이 날리는 것 같구나!

16행-22행 : 만폭동 폭포의 장관
 <요지> 관내가 무사한 호시절 삼월에, 간편한 옷차림으로 내금강 만폭동 폭포의 장관을 구경
 (어구풀이)
 * 營營中中 : 감영(관할지역) 안. 지금의 도청에 해당됨.
 * 無無事스하고 : 아무 일이 없고. 태평하고. 작자 자신이 선정을 베풀어 도내(道內)가 태평함 → 작자의 선정(善政)에 대한 자

부심, 자화자찬(自畫自讚)이 드러남.

- * **楓峯岳** : 가을 금강산의 별칭. 봄-금강(金剛), 여름-봉래(蓬萊), 가을-풍악(楓岳), 겨울-개골(皆骨). '풍악'은 금강산의 가을 명칭이므로 어울리지 않지만, 그 아름다운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의도적인 사용으로 볼 수 있다. 문맥상은 금강(金剛).
- * **行行裝** : 여행할 때의 채비
- * **떨티고** : 떨치고 떨어버리고
- * **石徑** : 돌이 많은 오솔길
- * **막대 디퍼** : 지팡이 짚어, 막다히 > 막다이 > 막대
- * **百瀑川洞** : 금강산의 지명. 장안사 동북에 있는 옥경대, 명경대로 들어가는 골짜기.
- * **거티 두고** : 곁에 두고. 곁을 지나서
- * **萬瀑洞** : 표훈사 위로부터 마하연 아래까지의 계곡
- * **초리** : 꼬리. 현대의 '눈초리', '회초리'에 그 자취가 남아 있음.
- * **섯돌며** : 셋이어 돌며. 셋(다)+돌다. 셋돌다(합성동사)
- * **주사시니** : 깔렸으니. 퍼졌으니.
- * **들을 제논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 멀리서 들을 때는 우레더니 가까이서 보니 눈과 같구나. 원근감이 잘 드러난 표현이다. 우레: (원관념)폭포 소리. 보니: 본즉. 눈: (원관념)폭포의 포말. -더->-러-: 유음화.
- * **우레>우뢰** : 민간 어원설(우레의 어원이 한자어 '우뢰(雨雷)'인 줄 잘못 얹으로써 온 민간어원).

23 **金剛강臺** **민 우層층의** **仙鶴학이** **삿기 치니**

표훈사 북쪽에 있는 깎아 세운 듯한 석벽 신선이 타고 논다는 학
☞ 금강대 맨 꼭대기에 사는 선학이 새끼를 치니.

24 **春風** **玉笛** **덕聲의** **첫짐을** **씨뒸던디,**

봄바람 옥피리 소리(산속 바람소리의 미화) 선잠
☞ 봄바람 옥피리 소리에 선잠을 깨었던지

25 **縞衣의玄裳** **상이** **半空공의** **소소** **뜨니,**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선학을 기리킨 말) 그리 높지 아니한 공중
☞ 흰 저고리 검은 치마로 단장한 학이 반공중(半空中)에 치솟아 뜨니,

26 **西湖호** **넛** **주주人인** **을** **반겨서** **넘노는** **듯.** (화자는 신선적 풍모를 지향하며, 자연과의 조
송나라 시인 임포(원관념 : 화자 자신) **화로운 삶을 추구함**) → **우아미**

-- 매처학자(梅妻鶴子 : 임포는 매화를 아내 삼고 학을 자식으로 삼아 풍류를 즐겼다고 함)의 고사 인용
☞ 서호에서 학과 더불어 노닐던 임포를 반겨서 넘나들며 노는 듯하구나!

23행-26행 : 금강대 위의 선학에서 도선적(道仙的) 풍류를 느낌
(어구풀이)

- * **金剛강臺** : 표훈사(表訓寺) 북쪽의 깎아 세운 듯한 석벽
- * **仙鶴학** : 신선이 타고 논다고 하는 학. 미화법
- * **삿기** : 새끼. 삿기>새끼(ㅣ 모음 역행동화)
- * **玉笛** : 옥피리 소리. 봄바람 소리의 미화법, 은유법
- * **씨뒸던디** : 깨었던지.
- * **縞衣의玄裳** :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 본래 뜻은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입은 선녀'를 가리킴. 여기서는 '몸뚱이가 희고 날개 끝이 검은 학, 곧 선학'을 의인화한 표현. 소동파의 적벽부에서 처음 나온 말이다.
- * **半空공** : 하늘 가운데. 허공에.
- * **소소** : 솟아, 솟(동사 어근)+오(부사파생 접미사) 솟아(파생 부사)
- * **西湖호** **넛** **주주人인** : 송나라의 시인 임포(林逋)를 가리킴.
- * **西湖호** : 중국 서강성에 있는 호수 이름. 송나라 때 임포가 서호에 숨어서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아들로 삼아서 살았고 하여 매처학자(梅妻鶴子)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 → 자신이 마치 임포인 듯 표현하고 있다.
- * **西湖호** **넛** **주주人인** **을** **반겨서** **넘노는** **듯** : 학이 송강 자신을 서호(西湖)의 옛 주인인 임포(林逋)인 줄 알고 반기며 반공에 솟아 너울너울 환영의 깃을 친다는 말로 작가 자신을 은근히 신선에 비겨 과시하고 있다.

27 **小香** **향爐** **노** **大香** **향爐** **노** **눈** **아래** **구버** **보고,**

☞ 만폭동 계곡에 솟아 있는 향로처럼 생긴 크고 작은 두 봉우리를 눈 아래 굽어보고 나서

28 **正陽** **양** **寺** **스** **眞** **진** **歇** **혈** **臺** **디** **고** **터** **올** **나** **안** **즌** **마** **리,**

표훈사 북쪽에 있는 절 정양사 뒤의 높은 대
☞ 정양사를 지나 진혈대에 다시 올라 앉으니,

29 **廬** **녀** **山** **산** **眞** **진** **面** **면** **目** **목** **이** **여** **기** **야** **다** **뵈** **느** **다.**

여산의 참다운 모양(원관념:금강산의 참다운 모양)
☞ 금강산의 참모습이 여기서야 다 보이는구나,

30 **어** **와,** **造** **조** **化** **화** **翁** **옹** **이** **헌** **스** **도** **헌** **스** **홀** **샤.** (산세의 다양함을 찬양한 말) → **우아미**

☞ 아아. 조물주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 31 **날거든 뛰디 마나, 셋거든 솟디 마나.** (다양하며 동적인 산봉우리들의 모습)
 산봉우리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묘사한 말]—송순의 면앙정가의 문체 영향
 ☞ (산봉우리들이) 날거든 뛰지 말거나, 서 있거든 솟지 말거나 할 것이지,
- 32 **芙부蓉용을 고갯논 듯, 白백玉옥을 못갯논 듯,** (빠어나며 정적인 산봉우리들의 모습)
 ☞ 연꽃을 꽃아 놓은 것 같기도 하고 흰 옥을 묶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 33 **東동溟명을 박차논 닷, 北북極극을 괴왓논 듯.** (웅장한 높은 산봉우리들의 모습)
 북극성(‘임금’을 상징) 떠받치고 있는(기본형:괴오다)
 ☞ 동해를 박차고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북극성을 떠받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 34 **높히려고 望망高고臺臺디, 외로올샤 穴혈望망峰봉이**
 -- 망고대, 혈망봉의 모습은 직간(直諫)하는 충신의 기개와 상통한다.
 ☞ 높구나 망고대여 외롭구나 혈망봉이
- 35 **하늘의 추미러 무슨 일을 스로리라**
 ‘임금’을 상징
 ☞ 하늘에 치밀어 무슨 일을 아뢰려고
- 36 **千천萬萬劫劫 디나도록 구필 줄 모르는다.**
 ☞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느냐?
- 37 **어와 너여이고, 너 古古니 또 잇는가. → 송고미**
 망고대와 혈망봉
 -- ‘나’(정철 자신)도 ‘너’(망고대와 혈망봉)처럼 강직한 신하가 되고 싶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 아아, 너로구나, 너 같은 충신이 또 있을까?

27행-37행 : 진혈대에서의 조망

<요지> 진혈대에 올라서 금강산의 다양한 산세에 감탄하고, 망고대, 혈망봉의 기개를 보고 충절을 다짐한다.

(어구풀이)

- * 正정陽陽寺스 : 표훈사 북쪽에 있는 절
- * 眞진歇혈臺臺디 : 정양사 뒤에 있는 높은대(臺)에
- * 고터 올라 : 다시 올라
- * 안즌마리 : 앉으니
- * 廬녀山山 眞진面면면목 : 중국의 명산인 여산의 참모습, 문맥 의미-금강산의 참모습(참된 아름다움)
- * 여괴야 : 여기서야
- * 뵈는다 : 보이는구나. 보인다.(피동사)
- * 廬녀山山 眞진面면면목이 여괴야 다 뵈는다 : 소동파는 여산에서도 여산의 참모습을 못 보았다고 한탄했지만, 나는 진혈대 위에서 금강산의 참모습을 다 보게 되었구나. 녀산-금강산(은유법)
- * 造造化化翁翁 : 조물주
- * 헌스토 헌스홀샤 :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아름답게 꾸미기도 아름답게 꾸몄구나. ‘헌스ㅎ기도’의 축약.
- * 날거든 뛰디 마나, 셋거든 솟디 마나 : 산봉우리들이 나는 모습, 뛰는 모습, 우뚝 선 모습, 솟아오르는 모습 각색이구나. 산봉우리의 변화무쌍한 모습.(활유법, 대구법) ‘~거든 ~마나’의 형태는 송순의 <면앙정가>의 영향을 받음.
- * 芙부蓉蓉 : 연꽃. 원관념-(아름다운)산봉우리
- * 東동溟명 : 동해
- * 北북極극 : 북극성. 고전시가에서 흔히 해, 달, 북극성은 임금을 상징
- * 괴왓논 듯 : 떠받쳐 권 듯.
- * 芙부蓉蓉을 고갯논 듯 ~ 北북極극을 괴왓논 듯 : 연꽃을 꽃아 놓은 듯, 백옥을 묶어 놓은 듯 그렇게 수려하며, 동해 바다를 박차는 듯, 북극을 괴어 놓은 듯 그렇게 힘차다. 산봉우리들의 천태만상의 기묘한 장관을 묘사한 말이다.(부용, 백옥→산봉우리, 순수, 고결의 의미 함축) 북극은 중의적인 뜻으로 임금을 상징한다. (열거법, 직유법, 대구법, 활유법)
- * 높히려고 : 높구나. 높(형용사 어간)+올시고(감탄형 어미)
- * 외로올샤 : 외롭구나. 외롭(형용사 어간)+올샤(감탄형 어미)
- * 높히려고 望망高고臺臺디, 外로올샤 穴혈望망峰봉이 : 무정물(無情物)을 유정물(有情物)과 동일시하여 작자의 외로움과 의지와 절개를 은근히 내보이고 있다. 망고대, 혈망봉은 직간(直諫)하는 충신의 기개로, 작자 자신의 모습을 뜻한다. (대구법, 도치법, 의인법)
- * 추미러 : 치밀어. ‘추다+밀다’의 합성어
- * 스로리라 : 알리려고. 아뢰려고. (기)소로다. 스로(어간)+리라(의도 종속적 연결어미)
- * 千천萬萬劫劫 : 오랜 세월
- * 구필 : 굽힐. (기)구피다. 굽(형용사 어근)+히(사동 접미사)+르(관형사형)
- * 하늘의 추미러 ~ 구필 줄 모르는다 : 산의 굳은 의지와 절개를 새삼 느껴 자신의 절의(節義)를 다짐하고 호소하는 말이다. ‘하늘’은 임금을 상징하는 말로 작자의 직간신(直諫臣)으로서의 풍모가 함축되었다.
- * 古古니 : 같은 것이. 곱(형용사 어간)+은(관형사형 어미)+이(의존 명사)

을 뜻한다.

- * **몬돌고자** : 만들고 싶구나. (기)몬들다. 몬돌(어간)+고자(원망형 어미). 만 이천 봉에 맺혀 있는 깨끗하고 맑은 정기로 훌륭한 인물을 만들고 싶다는 것은 당시 조정에 얽혀 있는 당쟁을 다스릴 인재를 갈망하는 심정의 표현이다.
- * **더 귀운 흐터 내야 인인(傑)걸을 몬돌고자** : 저 깨끗한 기운을 흠어 내어 난세(亂世)를 구할 인물을 만들고 싶구나. 당시 조정에 얽혀 있는 당쟁을 없앨 인물을 갈망하는 우국지정의 표현이다.
- * **形형容容** : (산의)정태(靜態), 고요한 모습
- * **體테勢세** : 몸가짐. 모양새, (산의)동태(動態).
- * **하도 할샤** : 많기도 많구나.
- * **形형容容도 그지업고 體테勢세도 하도 할샤** : '형용'은 산의 정태(靜態), '테세'는 동태(動態)를 말한 것으로, 산봉우리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나타낸다. (대구법, 영탄법)
- * **삼기실** : 생겨날. 창조될. (기)삼기다. 삼기다>상기다>생기다. '시': 비존칭 선어말 어미.
- * **自즈然연이** : 저절로.(부사)
- * **되연마논** : 되었지마는.
- * **有有情정도 有有情정홀샤** : (조물주의) 뜻이 깃들어 있기도 있구나.
- * **天던地디 삼기실 ~ 有有情정도 有有情정홀샤** : 천지 만물이 처음 생겨날 때는 무심히 되었으련마는 이제 금강산에 와 산세를 보니 조물주의 깊은 뜻에 의해 만들어진 것 같구나.
- * **毗비蘆로峰봉 上上上頭두** : 금강산의 최고봉. 해발 1638M
- * **올라 보나** : 올라가 본 사람이. 보(어간)+나(관형사형 어미)+이(의존 명사)
- * **어느냐** : 어느 것이. 어느(대명사)+야(강제 보조사)
- * **높듯던고** : 높던가? 높(어간)+듯(감탄 선어말어미)+더(회상 선어말어미)+나고(의문형 어미)
- * **東동山산 태태山산이 어느냐 높듯던고** : 동산 태산이 비로봉과 비교하여 어느 것이 높던가? 비로봉의 높은 산세를 바라보며 공자의 고사를 연상했다. (설의법)
- * **魯魯國國** : 공자가 살았던 노나라
- * **적당 말고** : 작다는 말이고, <맹자(孟子) 진심장>에 “孔子曰 登東山而小魯 登泰山而小天下”란 구절이 있음. 공자의 활달한 정신적 경지(浩然之氣)를 흠모한 표현.
- * **더 디위를 어이하면 알 거이고** : 공자의 저 높은 정신적 경지를 어찌하면 알 것인가. 안회(顏回)가 공자의 덕의 높고 큼은 아무리 하여도 미치지 못하겠다고 자탄한 말과 관련됨.
- * **고이홀가**: 괴이할까? 이상하랴? 그렇지 않다. 괴이(怪異)하다>고이하다(동음생략)

52 **圓원통통골** **근 길로** 獅스子즈峰봉을 **츠자가니,**

표훈사 북쪽에 있는 골짜기 **좁은 길(細路(세로))**

☞ 원통골 가느다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53 **그 알피** **너러바회** 化化龍龍硯硯 **되어세라.**

☞ 그 앞에 넓고 평평한 바위가 화룡소가 되었구나.

54 **千천年년** 老老龍龍이 **구비구비** **서려** 이셔,

화룡소의 굽이치는 물을 비유한 표현

→ 문맥상 훌륭한 정치가가 되고자 하는 화자 자신을 천년노룡에 비유

☞ 마치 천 년이나 묵은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서

55 **晝晝夜야의** **흘녀 내어** 滄창海海히에 **니어시니,**

☞ 밤낮으로 흘러내어 넓은 바다에 이어졌으니,

56 **風풍雲운을** **언제 어더** 三삼日日雨우를 **디련는다.**

(승천할)기회

3일 동안 내리는 흡족한 비(善政[선정]을 뜻함)

-- 용이 풍운(기회)을 얻으면 바람과 구름을 타고 승천하여 조화를 부려 비를 내린다는 전설을 배경으로 한다.

☞ (천년노룡[화자 자신]아, 너는) 풍운을 언제 얻어서 삼일우를 내리려 하는가?

57 **陰陰崖애에** **이온** **플을 다** **살와 내여스라.** → 송고미

그늘진 벼랑에 시든 **플**

(혈벗고 굶주린 백성)

☞ 혈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다 살려 내려무나.

52행-57행 : 화룡소에서 감회

<요지> 화룡소에 이르러 화룡소를 바라보며 선정을 베풀어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자신에게 명령하는 형식으로 선정의 의지를 나타내었다.

(어구풀이)

- * **圓원통통골** : 표훈사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근 길** : 좁은 길. 세로(細路). 주의) 가는 길: 行路.
- * **알피** : 앞에. 앞(명사)+이(처소부사격 조사)
- * **너러바회** : 너럭바위. 반석(盤石)
- * **化化龍龍硯硯** : 화룡소(못, 명사)+이(보격 조사)
- * **되어세라** : 되었구나. 되(어간)+여시(과거시제 선어말어미)+에라(감탄형 종결어미)

- * 千成年년 老노龍룡 : 화룡소의 굽이치는 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상징적인 뜻으로는 작가 자신을 가리킴.
- * 구비구비 : 굽이굽이
- * 서려 이셔 : (부사)서리어 있어서
- * 흘녀 내여 : 흘리어. 흐르게 하여
- * 滄창海히 : 아득히 넓은 바다
- * 風풍雲운 : 바람과 비 즉 좋은 시절.
- * 三삼日일雨우 : (농사에) 흡족한 비. 선정이나 임금의 은총을 비유함
- * 디련논다 : 내리려 하느냐? '디려하논다'에서 '하' 생략.
- * 風풍雲운을 언제 어더 三삼日일雨우를 디련논다 : 용이 풍운(때)을 얻으면 바람과 구름을 타고 승천하여 조화를 부려 비를 내린다는 전설을 배경으로 한다. 여기서 화룡소와 노룡은 송강 자신을 비유하는 말이고 삼일우는 백성에게 고루 베푸는 혜택 즉 선정(善政)을 은유한 말이다.
- * 陰음崖애 : 응달. 그늘진 언덕
- * 이온 풀 : 시든 풀. 마른 풀. 고난에 허덕이는 백성들 상징. 이다>이올다>이올다
- * 살와 : 살리어.(기)살오다 살(어근)+오(사동 접미사)+아(보조적 연결형)
- * 내여스라 : 내려무나(명령형) 내(어간)+여스라(명령형)
- * 陰음崖애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스라 :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헐벗고 굶주린 백성을 은유)을 다 살리어 내려무나. 목민관으로서의 자세가 돋보이는 구절이다.

- 58 磨마訶하衍연 妙묘吉길祥상 雁안門문재 너머 디여,
☞ 마하연, 묘길상을 구경하고 안문재를 넘어 내려가,
- 59 외나모 써근 다리 佛불頂頂臺臺디 올라흐니,
☞ 외나무 썩은 다리를 건너 불정대에 오르니
- 60 千천尋심絶絶壁벽을 半반空공애 세여 두고,
☞ 천 길이나 되는 낭떠러지를 반공중에 세워 놓고,
- 61 銀은河河水수 한 구비를 촌촌이 버혀 내여,
은하수, 실, 뱀→폭포 큰
☞ 은하수 큰 굽이를 마디마디 베어 내어
- 62 실기티 풀터이셔 뱀기티 거러시니,
실:폭포의 근경 배:폭포의 원경
☞ 실같이 풀어서 뱀같이 걸었으니,
- 63 圖도經경 열두 구비 내 보매는 여러히라.
산수(山水)를 그림으로 설명한 책 십이폭포
☞ 도경에는 열두 굽이(십이폭포)로 되어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보다 더 많아 보인다.
- 64 李니謫덕仙선 이제 이셔 고터 의논하게 되면,
하늘에서 귀양 온 신선
☞ 이태백이 지금 살아 있어서 다시 논의하게 된다.
- 65 廬녀山산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흐려니.
여산폭포가 십이폭포보다
-- 이태백은 그의 시 '망여산 폭포'에서 여산폭포를 극찬함.
☞ 여산 폭포가 여기보다 더 낫다는 말은 못 할 것이다.

58행-65행 : 불정대 십이 폭포의 장관에 감탄함
(어구풀이)

- * 磨마 訶하衍연 : 만폭동 상류 가장 깊은 곳의 지명.
- * 妙묘吉길祥상 : 마하연 동쪽 석벽에 새겨 놓은 불상 이름
- * 雁안門문재 : 마하연에서 유점사 도중에 있는 고개 이름
- * 너머 디여 : 넘어 내려가
- * 써근 다리 : 썩은 다리. 낡은 다리. 참고) 다리(橋). 다리(脚)
- * 올라흐니 : 오르니.
- * 千천尋심絶絶壁벽 : 천 길이나 되는 절벽. 심(尋): 여덟 자(尺)
- * 半반空공 : 허공.
- * 세여 : 세워. (기)세다 서(자동사 어근)+이(사동 접미사)+여(보조적 연결어미)
- * 千천尋심絶絶壁벽을 半반空공애 세여 두고 : 천 길이나 되는 높은 절벽을 허공에 세워 두고 폭포의 장관을 형성하게 된 높은 절벽을 묘사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 * 銀은河河水수 : 원관념→ 폭포. 은유법.
- * 한 구비 : 많은 구비를. '한'은 형용사로서 '많은'의 뜻. 오늘날에는 접두사에 자취가 남아 있다.

- * **촌촌이** : 마디마디 (부사)
- * **버혀** : 베어.(기)버히다. 버히다>버이다>베다
- * **실긔티** : 실처럼
- * **플터이셔** : 풀어서. 풀어 가지고.
- * **뵈긔티** : 베같이.
- * **거리시니** : 걸었으니.
- * **銀은河河水슈 한 구비를 ~ 뵈긔티 거리시니** : 열두 단(段)으로 흐르는 십이 폭포가 마디마디 끊어져 베틀에 걸어 놓은 낄실 모양으로 가지런하게 걸려 있다는 말로, 십이 폭포의 장관을 사실적이면서도 기발하게 표현하였다.
- * **圖도經경** : 산수의 지세(地勢)를 그리고 설명한 책. 요즘 식으로 말하면 관광 안내도.
- * **보매논** : 보기에는
- * **여러히라** : 여럿이다. 여러ㅎ(ㅎ받침체언)+이(서술격 조사의 어간)+라(평서형)
- * **李니謫덕仙선** : 이백(李白). 이백의 벗 하지장(賀知章)이 “이백은 하늘에서 인간으로 귀양 온 선인(仙人)이라.”하였음. 이백은 여산(廬山)의 폭포가 기이한 것을 보고 <망여산폭포>를 지었음.
- * **廬녀山산** : 중국 강서성에 있는 산. 여산 폭포를 이름
참고 - <망여산폭포>
日照香爐生紫煙(일조향로생자연)
遙看瀑布掛長川(요간폭포괘장천)
飛流直下三千尺(비류직하삼천척)
疑是銀河落九天(의시은하낙구천)
해가 향로봉을 비추니 자줏빛 연기가 일고,
멀리 폭포를 바라보니 긴 냇물이 걸려 있도다.
나는 듯이 흘러 곧추 삼천 척을 떨어지니
아마도 은하수가 구천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 * **여기도곤** : 여곡(대명사)+도곤(비교 부사격 조사)
- * **못 흐려니** : 못 하리라. 못할 것이다.

- 66 **山山中들을 미양 보라, 東동海히로 가자스라.**
내금강
☞ 산중만 매번 보겠는가, 동해로 가자꾸나.
- 67 **藍남興여 緩완步보호야 山산映영樓樓의 올라호니,**
유점사 앞의 시냇물을 건너 질러 세운 누각
☞ 남여가 천천히 나아가 산영루에 오르니,
- 68 **玲녕瓏농 碧벽溪溪와 數수聲성 啼테鳥도논 離니別별을 怨원호는 듯,**
☞ 영롱한 푸른 시냇물과 여러가지 소리로 우는 새는 (나와의) 이별을 원망하는 듯,
- 69 **旌정旗기를 썰티니 五오色색이 넘노는 듯,**
(관찰사의 행렬을 상징하는)깃발을
☞ 정기를 휘날리니 오색이 넘나들며 노는 듯,
- 70 **鼓고角각을 셋부니 海히雲운이 다 걷는 듯.**
☞ 북과 피리를 섞어 부니 바다의 구름이 다 걷히는 듯하다.
- 71 **鳴명沙사길 니근 물이 醉취仙仙을 빗기 시러,**
명사십리(밟으면 씻소리가 난다는 매우 곱고 깨끗한 모래밭) 자연에 도취한 신선(화자 자신을 말함)
☞ 모래밭 길에 익숙한 말이 도취한 신선을 비스듬히 태우고,
- 72 **바다를 겨티 두고 海히棠당花화로 드러가니,**
☞ 바다를 따라 해당화가 피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니,
- 73 **白백鷗구야 누디 마라, 네 버딘 줄 었디 아는. (자연 친화의 감정 표출, 물아일체의 경지)**
☞ 갈매기야 날아가지 마라. (내가) 네 벗인 줄 어찌 아느냐?

66행-73행 : 동해로 가는 감회
(요지) 해금강으로 향하며 명사 십리에서 흥취를 노래함

(어구풀이)

- * **山山中들** : 내금강을 가리킨 말.
- * **미양** : 향상. 늘.(부사) 미양>미 >미양>미양>미양>미양>미양. 15세기 동국정운식 표기: 每甞常甞
- * **가자스라** : 가자꾸나. 가(어간)+자스라(청유형 어미)
- * **藍남興여** : 귀인이 타는 뚜껑 없는 가마

- * 緩安歩歩 : 천천히 걸음
- * 玲瓏瀟灑 碧峽溪峽와 數聲鶯啼 鶯啼鳥도 : 눈부시도록 맑고 아름다운 푸른 시내. 여러 아름다운 소리로 우는 새
- * 怨望 怨望 怨望 : 원망하는 듯(하다)
- * 玲瓏瀟灑 碧峽溪峽와 ~ 離離別離 離離 怨望 怨望 怨望 : 반짝이는 시냇물과 여기저기에서 우짖는 새는 이별을 원망하는 듯하다. 금강산을 떠나기가 아쉬운 심정을 시냇물과 새에 의탁한 감정 이입의 표현으로, 내금강 유람길에 올랐을 때의 '縞衣의玄裳상이 半空의 소소 쓰니, 西湖호 넷 주주人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구절과 호응한다.
- * 旌旗 旌旗 : 깃발. 관찰사의 행렬을 상징하는 깃발
- * 떨티니 : 떨치니. 위세있게 휘날리니. 떨(어근)+티(강세 접미사)+니(종속적 연결어미)
- * 五五色色이 넘노는 듯 : 깃폭이 뒤섞여 나부끼는 모양
- * 鼓角 鼓角 : 북과 피리
- * 섯부니 : 섞어 부니. '섞다(混)+불다(吹)'의 합성동사
- * 것는 듯 : 걷히는 듯. (기)걸다. 피동 접미사가 쓰이지 않았지만 피동으로 해석함
- * 旌旗 旌旗를 떨티니 ~ 海雲이 다 걷는 듯 : 동해로 가는 상쾌한 마음을 나타낸 것으로 시각과 청각이 호응을 이뤄 위풍당당한 관찰사의 행차 광경을 대구적으로 표현하였다.
- * 鳴沙 鳴沙 鳴沙 : 밟으면 쇠소리가 울린다는 모래사장
- * 니근 : 익은. 익숙한
- * 醉仙 醉仙 : 취한 신선. 작자 자신
- * 바다 바다 : 바다를
- * 갓티 : 곁에
- * 海棠 海棠 海棠 : 해당화 꽃밭
- * 鳴沙 鳴沙 鳴沙 길 니근 물이 ~ 海棠 海棠 海棠로 드리 가니 : 명사십리 해변을 따라 해금강으로 가는 대목이다. 자기가 비스듬히 탄 것을 말이 기우뚱하게 실은 것으로 뒤집어 표현하였으며, '취선'은 술에 뿐만 아니라 풍경, 흥취 등에 도취된 복합적 취흥(醉興)으로 도도해진 자신을 신선에 견준 것이다.
- * 白鷗 白鷗 : 흰 갈매기
- * 누디 : 날지
- * 엇디 아논 : 어찌 아느냐?
- * 白鷗 白鷗야 누디 마라, 네 버딘 줄 엇디 아논 : 해당화가 핀 명사십리에 백구들이 한가하게 놀고 있어, 백구를 벗어나 자연 속에 살고자 하니 반겨 달라는 뜻이다. 자연과 물아일체(物我一體)가 된 자연 친화의 감정을 표현했다.(문답법, 도치법)

74 金蘭窟窟 窟窟 도라드려 叢石石석亭亭 올라하니,

통천 바닷가 높은 벼랑에 있는 넓고 깊은 굴
 ☞ 금란굴을 돌아들어서 총석정에 오르니,

75 白玉樓樓 누 남은 기동 다만 네히 셔 잇고야.

옥황상제가 거쳐하는 누각(원관념:기동 모양의 바위)
 ☞ 백옥루의 남은 기동처럼 다만 (바다 가운데에 돌기둥) 네 개가 셔 있구나.

76 工公垂垂의 성녕인가, 鬼鬼斧斧로 다듬은가. (총석정에서 바라본 사선봉[바다에 솟은 네 개의 바위 기둥]의 아름다움을 표현)

☞ (저 네 개의 돌기둥은) 공수의 솜씨인가. 귀신의 도끼로 다듬었는가?

77 구특야 六面面은 모여슬 象象뿔뿔고.

사선봉의 봉우리 모양
 ☞ 구태어 그 돌기둥이 여섯 모가 난 것은 무엇을 본뿔는가?

74행-77행 : 총석정에서 본 사선봉의 장관에 감탄함
 (어구풀이)

- * 金蘭窟窟 : 통천(通川) 바닷가 높은 벼랑에 있는 큰 동굴.
- * 叢石石석亭亭 : 금란굴 북쪽 10리에 있는 바닷가의 정자.
- * 올라하니 : 오르니
- * 白玉樓樓 : 옥황상제가 거쳐한다는 누각.
- * 네히 : 넷이. 네 개가. 네ㅎ(ㅎ받침체언)+이(주격 조사)
- * 셔 잇고야 : 셔 있구나.
- * 工公垂垂 : 중국 고대의 이름난 공장(工匠)의 이름. 工匠: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
- * 성녕 : 공작품(工作品), 지금도 시골에선 대장간을 '성냥간'이라 하는 사람도 있다.
- * 鬼鬼斧斧 : 신기한 연장(도끼).
- * 다듬은가 : 다듬었는가? 다듬(어간)+은가(과거 의문형)
- * 구특야 : 구태어
- * 六面面 : 동서남북상하의 6면.
- * 象象뿔뿔고 : 형상했는가? 본뿔었는가?

* **구투야 六窟面면은** **머어슬 象상똥던고** : 사선봉(四仙峰)의 봉우리 모양이 육면 석주(六面石柱)와 같다는 데서 조화옹의 의도는 무엇을 본뜬 것일까? ‘육면’은 육합(六合), 즉 천지(天地)사방(四方)인 우주를 상징한 숫자다.

- 78 **高古城성을란 더만 두고 삼삼日일浦포를 차자가니,**
고성 북쪽에 있는 포구. 신라 때 사선(四仙)이 사흘 동안 놀았다는 곳.
☞ 고성을 저만큼 두고 삼일포를 찾아가니.
- 79 **단단書서는 宛宛然然히디 四스仙선은 어디 가니,**
삼일포 남쪽 절벽에 있는 붉은 글씨 신라 때의 선도(仙徒) 네 사람(술량, 남량, 영량, 안상)
‘永郎徒南石行’(영랑의 무리가 남석으로 갔다)이라는 글씨가 있었다 함
☞ 붉은 글씨는 분명하되 사선은 어디 갔는가?
- 80 **예 사흘 머은 後후의 어디 가 또 머물고.**
☞ 여기서 사흘을 머은 후에 어디 가서 또 머물렀는가?
- 81 **仙선遊유潭담 永영郎郎湖호 거기나 가 잇는가.**
간성 남쪽에 있는 연못 속초에 있는 호수
☞ 선유담, 영랑호 거기나 가 있는가?
- 82 **淸淸澗間亭亭 萬만景景臺臺 몇 고디 안똥던고.**
간성 남쪽에 있는 정자 청간정 동쪽 바닷가 벼랑 위에 있는 정자
☞ 청간정, 만경대, 몇 곳에 앉았던가?

78행-82행 : 삼일포에서 네 신선을 회고함
(어구풀이)
* **高古城성을란** : 고성을. 목적어.
* **더만 두고** : 저만큼 놓아두고.
* **삼삼日일浦포** : 고성 북쪽에 있는 포구 이름.
* **단단書서** : 바위에 새긴 붉은 글씨. 삼일포 남쪽 절벽에 ‘永郎徒南石行(영랑의 무리가 남석을 향해 떠나간다)’이라 쓰여 있음.
* **宛宛然然히디** : 뚜렷하되. 분명하되
* **四스仙선** : 신라 국선(國仙)인 영랑, 남량, 술량, 안상을 말한다.
* **예** : 여기. 즉 삼일포.
* **어디 가니** : 어디로 갔는가. 가(어간)+니(과거 의문형)
* **머물고** : 머무러까? 문맥상 의미는 ‘머물렀는가’이다.
* **仙선遊유潭담 永영郎郎湖호** : 둘 다 연못 이름.
* **淸淸澗間亭亭 萬만景景臺臺** : 둘 다 정자 이름.
* **몇 고디** : 몇 곳에
* **안똥던고** : 앉았던가? 앉아 놀았던가? 앉(어간)+똥(감탄 선어말어미)+더(회상 선어말어미)+고(과거 의문형)

- 83 **梨梨花화는 불셔 디고 접동새 슬피 울 제,**
-- 계절적 배경 - 늦봄
☞ 배꽃은 벌써 떨어지고 접동새 슬피 울 때에,
- 84 **洛洛山山 東동畔畔으로 義의相상臺臺에 올라 안자,**
낙산사 동쪽 바닷가 벼랑 위에 있는 정자
☞ 낙산의 동쪽 언덕에 있는 의상대에 올라 앉아
- 85 **日日出출을 보리라 밤똥만 니러히니,**
☞ 해돋이를 보려고 한밤중에 일어나니,
- 86 **祥상雲雲이 집피는 동 六六龍龍이 바되는 동,**
☞ 상서로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듯 여섯 마리의 용이 (해를) 떠받치는 듯,
- 87 **바다히 떠날 제는 萬만國국이 일위더니, (해가 막 떠오른 순간의 모습을 표현)**
☞ 바다에서 (해가) 떠날 때는 온 세상이 일렁거리더니,
- 88 **天天中中의 티뜨니 毫毫髮髮을 헤리로다.**
☞ 하늘에 치솟아 뜨니 가는 터럭(털)을 헤아리겠도다.
- 89 **아마도 鯨구름 근처의 머물세라. (‘해’는 임금을 상징) → 우국지정**
‘간신배의 무리’를 상징
☞ 흑시나 지나가는 구름이 (해의) 근처에 머무러까 두렵구나.

90 **詩시仙선은 어디 가고 咳히唾타만 나맛느니**
 이태백 ①가래와 기침 ②훌륭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나 글
 여기서는 ②의 의미로 이태백의 시 '등금릉봉황대'를 가리키고, 89행은 그 시의 일부이다.
 ☞ (내 심정과 같은 시를 읊은) 이태백은 어디 가고 그가 남긴 유명한 말만 남았느냐?

91 **天塹地中間간 壯장훈 奇별 즈셔히도 惚혀이고.**
 ☞ 천지간에 굉장한 소식이 (이태백의 시에) 자세히도 표현되어 있구나.

83행-91행 : 의상대에서 일출의 장관을 봄
(어구풀이)

- * **梨梨花화** : 배꽃
- * **블서 디고** : 벌써 떨어지고. 지고. (참고) 디다(落). 지다(負).
- * **東동畔반** : 동쪽 둔덕(언덕)
- * **義의相상臺대** : 누각 이름
- * **보리라** : 보려고. 보(어간) -리라는 종속적 연결어미
- * **밤등만** : 밤중쯤. 한밤중에. '만'은 정도 보조사.
- * **니러흐니** : 일어나니.
- * **祥상雲운** : 상서로운(좋은 징조의) 구름.
- * **집피는 동** : 몽게몽게 피어나는 듯
- * **바되는 동** : 떠받치는 듯. 지탱하는 듯.
- * **祥상雲운이 집피는 동, 六육龍龍이 바되는 동** : 상서로운 구름이 질게 피어나는 듯, 여섯용이 해를 떠받쳐 올리는 듯. 해가 막 솟아오르려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말이다.
- * **바다히** : 바다에서. 바다로부터.
- * **萬만國국** : 온 세상이.
- * **일위더니** : 흔들리더니. 일렁거리더니. (기)일위다.
- * **바다히 써날 제논 萬만國국이 일위더니** : 해가 바다에서 떠날 때는 온 세상이 흔들리는 듯 일렁이더니. 일출을 일정하지 않은 해 면상의 공기층을 통하여 보게 되므로 시야의 모든 것이 동요되어 보이는 현상이다. 햇빛이 눈에 황홀하게 어리는 모습을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다.
- * **티뜨니** : 치솟아 뜨니. 티(강세 접두사)+뜨(어근)+니
- * **毫호髮발을 헤리로다** : 머리털 헤아리겠도다.→ 직설적 표현: 매우 밝다
- * **天塹中中の 티뜨니 毫호髮발을 헤리로다** : 해가 공중으로 치솟아 뜨니 가느다란 터럭도 헤아리겠다. 해가 높이 솟아 온 세상이 환함을 나타낸 말로, 임금의 총명, 예지를 비유하고 있다.
- * **넬구름** : 지나가는 구름. 원관념→ 간신
- * **근처의 머물세라** : (해의) 근처에 머물까 두렵다. 간신이 임금의 총명함을 흐릴까 두렵다. (기)머물다. 머물(어간)+세라(의구형 종결어미)
- * **아마도 넬구름 근처의 머물세라** : 아마도 지나가는 구름이 해의 근처에 머물러 광명을 가릴까 두려워라. '넬구름'은 간신배를 비유한 말로, 간신배들이 임금의 총명을 흐리게 할까 염려하여 한 말이다. 이백(李白)의 <등금릉봉황대>라는 시의 시구와 관련된 다.(풍유법)

참고 - 이백의 <등금릉봉황대>의 일부
 總爲浮雲能蔽日(총위부운능폐일)
 長安不見使人愁(장안불견사인수)
 모두 뜬구름이 되어 해를 가리니
 장안마저 볼 수 없어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되게 한다.

- * **詩시仙선** : 이백을 가리킴.
- * **咳히唾타** : 원뜻: 기침과 침. 훌륭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나 글. 여기서는 이태백의 <등금릉봉황대>를 말함.
- * **나맛느니** : 남았느냐.
- * **詩시仙선은 어디 가고 咳히唾타만 나맛느니** : 시선 이백은 지금 없지만, 그가 남긴 시구는 후인에게 경각심을 일으킨다. 이백의 시에 대한 공명(功名)과 경탄(敬歎)을 나타냈다.

92 **斜사陽양 峴현山산의 擲척躑躅을 므니블와**
 양양 북쪽에 있는 산
 ☞ 석양이 비치는 현산의 철쭉꽃을 잇달아 밟아

93 **羽우蓋개芝지輪륜이 鏡경浦포로 느려가니,**
 새의 깃으로 뚜껑을 꾸민, 신선이나 귀인이 탔다는 수레. 화자 자신을 신선에 비유하고 있음.
 ☞ 신선을 태운 수레가 경포로 내려가니,

94 **十십里리 氷빙紈환을 다리고 고터 다려,** [ebsn제 여기서부터~]
 경포 호수의 맑고 잔잔한 수면을 비단에 비유한 표현
 ☞ 십 리나 되는 비단을 다리고 다시 다린 것처럼

- 95 **長당松송 올흔 소개 슬꺾장 퍼더시니,**
 ☞ 큰 소나무가 둘러싼 속에 실컷 펼쳐졌으니.
- 96 **물결도 자도 잘샤 모래를 헤리로다.**
 ☞ 물결도 잔잔하기도 잔잔하여 모래를 셀 수 있을 것 같도다.
- 97 **孤고舟舟 解히纜람하야 亭亭子즈 우히 올라가니,**
 景포대
 ☞ 배 한척을 띄워 (경포 호수를 건너가서) 정자 위에 올라가니.
- 98 **江강門문橋교 너문 겨티 大대洋양이 거기로다.**
 동해
 ☞ 강문교 너문 곁에 넓은 바다가 거기로구나.
- 99 **從동容용흔다 이 氣기像상 闊활遠원흔다 더 境境界계, → 우아미**
 ☞ 조용하구나 이 기상[경포호의 기상] 넓고 아득하구나 저 경계[대양의 경계].
- 100 **이도곤 ㄱ즌 디 쏘 어디 잇닷 말고.**
 ☞ 이보다 더 갖춘 곳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 101 **紅홍粧장 古고事사를 헌스타 ㅎ리로다.**
 고려 우왕 때의 박신과 홍장의 사랑이야기
 ☞ (조용하고 아름다운 경포호의 분위기에 비해) 박신과 홍장의 옛일을 야단스럽다고 할 것이로다.
- 102 **江강陵능 大대都도護호 風풍俗속이 도흘시고,**
 ☞ 강릉 대도호부의 풍속이 좋구나.
- 103 **節절孝효旌정門문이 골골이 버러시니**
 ☞ 충신과 효자, 열녀를 찬양하기 위해 세운 붉은 문이 고을마다 벌여 있으니.
- 104 **比比屋옥可가封봉이 이제도 잇다 ㅎ다.**
 ☞ 요순 시절처럼 집집마다 모두 벼슬에 봉할 만큼 백성들이 착한 태평성대가 지금도 잇다 할 것이로다.

92행-104행 : 경포의 장관을 구경하고 강릉의 미풍양속에 감탄함
 (어구풀이)

- * 斜사陽양 : 석양(夕陽)
- * 躑躅躑 : 철쭉꽃
- * 므니불와 : 잇달아 밝아. (기)므니붉다. 참고) 므느다(늘이다. 계속하다) 므니(파생 부사) 붉+아 불>불와 (고어에서는 ㅂ불규칙 동사 현대어에서는 규칙 동사)
- * 翺우蓋개芝지輪륜 : 새의 깃으로 꾸민, 신선이 탄다는 수레. 송강 자신이 타는 수레를 미화하고 있다.
- * 氷빙絃환 : 희고 깨끗한 비단. (원): 맑은 경포호의 물
- * 十십리리 氷빙絃환을 다리고 고터 다려 : 주름살 하나 없이 곱게 다려 놓은 듯한 경포 호수의 잔잔한 수면을 묘사한 것으로, 멀리서 바라보이는 호수의 수면을 비단에 비유하여 표현했다.(은유법)
- * 올흔 : 올창한. 에워싼.
- * 슬꺾장 : 실컷. 싫도록(부사).
- * 퍼더시니 : 펼쳐졌으니.
- * 자도 잘샤 : 잔잔하기도 잔잔하구나.
- * 헤리로다 : 헤아리겠도다. 매우 많다.
- * 물결도 자도 잘샤 모래를 헤리로다 : 가까이서 본 경포 호수의 잔잔하고 맑은 수면을 묘사하고 있으며 경포호의 정밀미(靜謐美: 매우 맑은 아름다움)를 나타냈다.(반복법, 대구법, 도치법, 영탄법)
- * 孤고舟舟解히纜람 : 배의 닻줄을 풀어서. 배를 띄워
- * 從동容용흔다 : 조용하구나. 동용ㅎ(어간)+ㄴ다(감탄형 어미)
- * 闊활遠원흔다 : 넓고 아득하구나.
- * 이도곤 : 이보다. 이(대명사)+도곤(비교 부사격 조사)
- * 가즌 디 : 구비된 곳. 산과 바다의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곳. (기)긋다(備)
- * 잇닷 말고 : 있다는 말인가?
- * 紅홍粧장 古고事스 : 홍장은 기생 이름. 고려 우왕 때 강원감사 박신과 기생 홍장 사이에 어쩌구 저쩌구 했다는 사랑이야기가 있다.
- * 헌스타 ㅎ리로다 : 야단스럽다고, 굉장하다고 할 만하구나.
- * 도흘시고 : 좋구나. 훌륭하구나.
- * 節절孝효旌정門문 : 충신, 효자, 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해 세운 붉은 문.
- * 버러시니 : 벌였으니. 나열되어 있으니.
- * 比比屋옥可가封봉 : 요순시대의 백성이 모두 착해서 집집마다 벼슬을 줄 만하였다는 말. 그만큼 강릉의 인심이 어질다는 말.

* **있다** **홀다** : 있다고 하겠다.

105 **眞진珠珠館관** **竹죽西서樓루** **五오十십川천** **느린** **물이**

삼척에 있던 객관 죽서루 아래로 흐르는 시내
'진주'는 삼척의 옛 이름. '객관'은 옛날 공무여행자를 위한 숙박 시설
☞ 진주관 죽서루 아래 오십천에 흘러내리는 물이

106 **太태白백山산** **그림재**를 **東동海海**히로 **다마** 가니,

☞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 가지고 흘러가니,

107 **출하리** **漢한江江**의 **木목覓觅**의 **다히고져**. → 연군지정

☞ 차라리 (그 그림자를 임금님이 계신) 한강의 남산에 닿게 하고 싶다.

108 **王왕程程**이 **有유限限** **흐고** **風풍景景**이 **못** 슬미니,

☞ 관원의 여정에는 기한이 있고 풍경은 싫증이 나지 않으니, → 비장미

109 **幽유懷懷**도 **하도** **할샤** **客객愁愁**도 **둘** **딴** **업다**.

☞ 그윽한 회포도 많기도 많아 나그네의 시름도 둘 곳이 없다.
108행-109행 : 화자의 내면에 있는 두 모습(위정자로서의 모습과 인간 본연의 모습) 사이의 갈등을 토로한 부분

110 **仙仙槎**를 **찍워** **내여** **斗두牛牛**로 **向向** **향향** **살가**,

☞ 신선이 타는 뗏목을 띄워서 북두성과 견우성으로 향할까?

111 **仙仙人人**을 **촉촉**려 **丹단穴穴**의 **머므**살가.

신라 때 사선(四仙)이 놀았다는 고성 남쪽에 있는 굴

☞ 사선을 찾으려 단혈에 머무릴까?

105행-111행 : 죽서루에서 연군의 정과 그윽한 회포를 느낌
(어구풀이)

- * **眞진珠珠館관** : 삼척에 있던 객사.
- * **五오十십川천** : 시내 이름
- * **느린** : 흐르는. 흘러내리는. '느린'을 음수율을 맞추기 위해서 '느' 생략.
- * **木목覓觅** : 남산의 옛 이름.
- * **다히고져** : 닿게 하고싶구나. 달(어간)+이(사동 접미사)+고져(원망형 종결어미). 다히다>다이다>대다
- * **太태白백山산 그림재** ~ **木목覓觅**의 **다히고져** : 아름다운 태백산의 풍경을 담은 오십천이 동해 쪽으로 흘러가는데, 차라리 그것을 임금님이 계신 한강의 남산으로 향하게 하고 싶다. 연군지정(戀君之情)의 표현이다.
- * **王왕程程** : 관리의 여정(旅程) →작자의 신분 암시. 기행문 암시.
- * **못** **슬미니** : 못내 좋으니. 싫고 밉지 않으니.
- * **幽유懷懷** : 그윽한 회포.
- * **하도 할샤** : 많기도 많구나.
- * **客객愁愁** : 나그네의 근심.(기행문에 나타남)
- * **王왕程程**이 **有유限限** **흐고** ~ **客객愁愁**도 **둘** **딴** **업다** : 관원(官員)으로서 여정은 한계가 있고,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은 싫증나지 않으니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윽한 회포도 많구나. 위정자로서의 자신의 모습과 인간 본연의 모습 사이에서 갈등을 토로한 부분이다. 단순한 여정기가 아니라, 인간의 심층 심리적 갈등의 함축적인 표현이다.
- * **仙仙槎** : 신선이 탄다는 뗏목. 송강의 신선적 풍모가 나타난 표현.
- * **斗두牛牛** : 북두성과 견우성
- * **仙仙人人** : 사선(四仙)을 가리킴.
- * **丹단穴穴** : 고성 남쪽에 있는 동굴. 사선(四仙)이 놀았다고 한다.
- * **머므**살가 : 머무릴까? (기)머물다.
- * **仙仙槎**를 **찍워** **내여** ~ **丹단穴穴**의 **머므**살가 : 현실 도피적인 심정과 신선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仙槎(선사)'는 울진의 옛 이름이기도 하다(중의법)

112 **天天根根**을 **못내** **보와** **望望洋洋** **향향** **명명**의 **올은**말이,

☞ 하늘의 끝을 끝내 못 보아 망양정에 올랐더니,

113 **바다** **밝은** **하늘**이니 **하늘** **밝은** **머므**신고.

☞ 바다 밝은 하늘이니 하늘 밝은 무엇인가?

114 **곶** **곶** **노한** **고래** **뉘**라셔 **놀**내관디, (성난 파도가 출렁이는 모습을 묘사)

'파도'를 상징

☞ 가뜩이나 노한 고래를 누가 놀라게 하기에

- 115 불거니 썸거니 어즈러이 구는디고.
 ☞ 불기도 하고 뿔기도 하면서 어지럽게 구는 것인가?
- 116 銀은山산을 것거 내어 六육습합의 늑리는 듯,
 ‘흰 물결’을 비유(은유) 천지 사방(상하와 동서남북)
 ☞ 은으로 된 산을 꺾어 내어 온 세상에 흩어 내리는 듯
- 117 五오月월 長당天甸의 白백雪설은 므스 일고.
 ‘물보라’를 비유(은유)
 ☞ 오월의 넓은 하늘에 흰 눈이 무슨 일인가?

112행-117행 : (낮) 망양정에서 파도의 장관에 감탄함
 (어구풀이)

- * 天甸根근 : 하늘의 끝.
- * 못내 보와 : 내내 못 보아. 끝내 못 보아. 15세기 표기: 못내
- * 올은말이 : 오르니. (기)오르다. 오르(어간)+은마리(종속적 연결어미)
- * 밧근 : 밝은.
- * 므서신고 : 무엇인가? 므서신고: 므섯(대명사)+이(서술격 조사의 어간)+고(의문형 종결어미)
- * 굿득 노흔 고래 : ‘성난 파도’를 비유한 말.(은유법, 활유법).
- * 뉘라셔 : 누가. 누(대명사) + | 라셔(주격 조사)
- * 놀내관디 : 놀라게 했기에. 놀내관디: 놀라(어간)+ | (사동 접미사)+관디(종속적 연결어미)
- * 불거니 썸거니 : 불기도 하고 뿔기도 하면서
- * 구는디고 : 구는 것인가?
- * 굿득 노흔 고래 ~ 어즈러이 구는디고 : 성난 파도가 출렁이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 * 銀은山산 : ‘높이 솟은 파도, 즉 백두파(白頭波)를 비유한 말. 미화법.
- * 六육습합 : 동서남북상하. 즉 천지사방. 온 세상.
- * 五오月월 長당天甸 : 한여름의 하늘.
- * 白백雪설 : 원관념→ 파도의 포말(泡沫). 물보라.
- * 므스 일고 : 무슨 일인가?
- * 銀은山산을 것거 내어 ~ 白백雪설은 므스 일고 : 거칠게 높이 들끓어 오르는 흰 파도의 장관을 묘사하였다. ‘은산’의 원관념은 파도, ‘백설’의 원관념은 포말(泡沫)이나 물보라(직유법, 은유법)

- 118 저근덧 밤이 드리 風풍浪浪이 定명하거늘,
 ☞ 잠깐 동안에 밤이 되어 풍랑이 가라앉거늘,
- 119 扶부桑상 咫지尺척의 明明月월을 기다리니,
 (동해 바다의)해 뜨는 곳. 동해 가운데에 있다는 전설 상의 뽕나무를 말함. 반대말은 함지(咸池)
 ☞ (해가 뜬다는) 부상 가까운 거리에서 밝은 달을 기다리니.
- 120 瑞서光광 千천丈丈이 覩는 듯 숨는고야.
 ☞ 천 길이나 뻗친 상서로운 달빛이 보이는 듯하다가 숨는구나.
- 121 珠珠簾렴을 고터 짓고 玉옥階계를 다시 쓸며,
 ☞ 구슬로 만든 발을 다시 걸어 올리고 돌층계를 다시 쓸며
- 122 啓계明星星성 듯도록 곳초 안자 바라보니,
 ☞ 새벽이 돋을 때까지 곳곳이 앉아 바라보니,
- 123 白백蓮년花화 한 가지를 뉘라셔 보내신고.
 흰 연꽃. ‘달’을 비유한 표현(은유)
 ☞ 흰 연꽃 한 가지를 누가 보내셨는가?
- 124 일이 묘흔 世세계계 놉대되 다 覩고져. → 선정에의 포부
 망양정의 달밤의 경관
 -- 온 백성에게 좋은 정치를 베풀고 싶다는 의미
 ☞ 이렇게 좋은 세계를 남에게 다 보이고 싶구나.
- 125 流流霞하酒주 7득 부어 들드려 무론 말이,
 신선이 먹는다는 술. 화자가 자신을 신선에 비유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
 ☞ 유하주를 가득 부어 들고 달에게 묻기를,

126 **英雄雄웅은 어디 가며, 四스仙선은 그 뉘러니,**

이태백

☞ “영웅은 어디 갔으며 사선은 그 누구이더냐?”

127 **아미나 만나 보아 넷 기별 못자 하니,**

☞ 아무나 만나 보아 (영웅과 사선에 관한) 옛 소식을 묻고자 하니,

128 **仙선山산 東동海회에 갈 길히 머도 멀사.**

신선이 사는 삼신산(三神山)이 있다는 동해

☞ 삼신산이 있다는 동해에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118행-128행 : (밤) 망양정에서 아름다운 월출을 구경하고 도선적(道仙的) 풍류를 즐김

(어구풀이)

- * 저근덧 : 잠깐 동안에.
- * 風풍浪浪이 定定하거놀 : 바람과 물결이 가라앉거늘
- * 扶부桑상 : 해 돋는 곳. 중국 고대 전설에 의하면 동쪽바다 멀리 있다는 큰 뽕나무에서 해가 돋는다고 함. 해지는 곳=> 함지(咸池).
- * 咫지尺척 : 아주 가까운 곳.
- * 瑞서光광 千천丈丈당 : 길게 뻗어 있는 상서로운 빛
- * 魄논 듯 숨논고야 : (기)뵈다(사동사) 보였다가는 곧 숨는구나.
- * 瑞서光광 千천丈丈당이 魄논 듯 숨논고야 : 달빛이 구름에 가리어 그들이 길게 뻗었다가 사라지고 하는 초조한 장면을 나타낸 것으로, ‘아마도 널구름 근처의 머물세라’가 지닌 속뜻을 연상하게 한다.
- * 珠쥬簾렴 : 구슬을 꿰어 만든 발. 미화법.
- * 고터 짓고 : 다시 걸고.
- * 玉옥階계 : 옥으로 만든 계단. 미화법.
- * 啓계明明星성 : 새벽녘 동쪽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셋별. 새벽별. 효성. 금성. 비너스.
- * 곳초 안자 : 꽃꽂이. 자세를 바로잡아 곧게.
- * 白백蓮년花화 : 흰 연꽃. 원관념: 달. 미화법. 은유법.
- * 뉘러서 보내신고 : 누가 보내셨는고?
- * 白백蓮년花화 흔 가지를 뉘러서 보내신고 : 한 송이 연꽃같이 희고 아름다운 달을 누구(조화옹을 염두에 두고 한 말)가 이 세상에 보내었는가. ‘백년화’는 달의 비유다.(미화법, 은유법)
- * 일이 : 이렇게.(부사)
- * 놈대되 다 뵈고져 : 남들 모두(에게) 보이고 싶구나. 위정자로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남. 보(동사 어근)+이(사동 접미사)+고져(원망형 종결어미)
- * 일이 도흔 世세계계 놈대되 다 뵈고져 : 이렇게 좋은 망양정 달밤의 경관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이고 싶어라. 목민자(牧民者)로서 애민(愛民) 정신과 선정(善政)의 포부를 드러낸 표현이다.
- * 流流霞하酒쥬 : 신선이 먹는다는 술.
- * 무론 말이 : (기)문다(問). 물은 말이. 물(어간)+오(선어말 어미)+니(관형사형 어미). 15세기: 무론 (마리)
- * 流流霞하酒쥬 7득 부어 들드려 무론 말이 : 아름다운 달을 보고 술을 마시는 흥취를 노래한 구절이다. ‘뉴하쥬’는 술을 미화한 것으로, 자신을 신선(神仙)에 비기고 있다.
- * 英雄雄웅 : 이백을 가리킴
- * 四스仙선 : 신라 국선(國仙)인 영랑, 남랑, 술랑, 안상을 말한다.
- * 뉘러니 : 누구이더냐? (의문형) 누(의문대명사)+ㅣ (서술격 조사)+러(회상 선어말 어미)+니(의문형 종결어미)
- * 아미나 : 아무나. 아무(대명사)+ㅣ 나(불만,선택 보조사)
- * 넷 기별 : 옛 소식
- * 仙선山산 東동海회 : 삼신산(三神山)이 있다는 동해. 삼신산: 중국 전설에 나오는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으로 동해에 있다고 함. 우리 나라의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을 가리키는 말이라고도 함.
- * 머도 멀사 : 멀기도 멀구나. ‘도’:감탄 보조사

129 **松송根근을 베여 누어 풋짐을 얼핏 드니,**

☞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 선잠을 얼핏 드니,

130 **꿈에 흔 사람이 날드려 닐은 말이,**

신선

☞ 꿈에 한 사람이 나에게 이르는 말이,

131 **그디를 내 모르랴, 上상界계에 眞진仙선이라.**

☞ “ 그대[정철]를 내가 모르랴, (그대는) 하늘나라의 진짜 신선이라.

132 **黃황庭庭經경 一일字字를 엮디 그릇 닐거 두고,**

☞ 황정경 한 글자를 어찌 잘못 읽어 가지고

- 133 人人間간의 내려와서 우리를 쫓오는다.
☞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는가.
- 134 저근덧 가디 마오 이 술 한 잔 머저 보오.
☞ 잠깐 동안 가지 마오 이 술 한 잔 먹어 보오 ”
- 135 北북斗두星성 기우려 滄창海히水수 부어 내여,
술(유하주)을 비유한 말
☞ 북두칠성을 (국자 삼아) 기울여 푸른 바닷물을 (잔에) 부어,
- 136 저 먹고 날 머겨늘 서너 잔 거후로니,
☞ 저도 먹고 나도 먹이겨늘 서너 잔을 기울이니.
- 137 和화風풍이 翳습翳습하야 兩兩腋익을 추혀 드니,
☞ 부드러운 바람이 산들산들하여 양쪽 겨드랑이를 추켜 드니.
- 138 九구萬만리리 長당空공에 저기면 놀리로다.
☞ 구만리나 되는 넓은 하늘에 잠깐이면 날 것 같구나.
137행-138행 : 소동파의 ‘적벽부’에 나오는 ‘우화이등선(羽化而登仙 : 날개가 돋쳐서 하늘로 오르는 신선만 같다)’에서 연상된 내용
- 139 이 술 가져다가 四스海히에 고로 눈화,
☞ “ 이 술을 가져다가 온 세상에 고루 나누어
- 140 億억萬만 蒼창生싱을 다 醉취케 밍근 後후의, → 송고미, 애민정신
☞ 모든 백성들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 141 그제야 고타 만나 또 한 잔 ㅎ쟈고야.
☞ 그 때에야 다시 만나 또 한 잔 하자꾸나. ”
139행-141행 : 화자가 꿈 속의 신선에게 한 말
- 142 말 디자 鶴학을 타고 九구空공의 올라가니,
아득히 넓은 하늘(九萬里長空의 준말)
☞ 말이 끝나자 (꿈의 한 사람[신선]은) 학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 143 空空中中 玉옥簫쇼 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옥피리(신선이 분다는 피리)
☞ 공중(에서 들려오는) 옥피리 소리가 어제던가 그제던가 (싫게 어렵듯하구나).

129행-143행 : 꿈 속에서의 신선과의 인연과 선정에의 포부

- 144 나도 잠을 끼여 바다를 구버보니,
☞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 145 기핍를 모르거니 7인들 엇디 알리.
☞ 그 깊이를 모르는데 끝인들 어떻게 알겠는가?
- 146 明明月월이 千천山山萬만落낙의 아니 비친 디 업다.
‘임금의 은총’을 비유한 표현
☞ 밝은 달이 온 세상에 아니 비친 곳이 없다.

144행-146행 : 꿈에서 깨어남

(어구풀이)

- * 베여 : 베고.
- * 풋잠 : 풋잠. 선잠.
- * 얼푯 : 잠깐. 슬쩍.(부사)
- * 날드려 : 나에게
- * 넓은 말이 : 이른 말이. 이르기름. 날은: 니르(어간)+오(선어말 어미)+ㄴ(관형사형 전성어미)
- * 上상界계 : 하늘나라. (반)하계(下界). 인간세상.
- * 黃황庭당經경 : 도교의 경전인 도덕경. (신선들이 옥황상제 앞에서 한 글자라도 잘못 읽으면 속세로 귀양 내려온다 함)

- * 그릇 : 잘못.(부사)
- * 날거 : 읽어
- * 人人間間 : 속세. 인간세상.
- * 쓸오논다 : 따르느냐? (기)쓸오다.
- * 저근덧 : 잠깐 동안.
- * 北북斗두星성 : 북두칠성. (원): 술국자. 국자같이 생긴 모습에서 유래함.
- * 滄창海海水水 : 은하수의 물. (원): 술(유하주).
- * 머겨늘 : 먹이겨늘. (기)머기다. 머겨늘: 먹(동사 어근)+이(사동 접미사)+어늘(종속적 연결어미). ㄱ탈락.
- * 거후로니 : 기울이니. (기)거후로다.
- * 和화風풍 : 봄바람. 춘풍. 동풍. 샛바람.
- * 翫翫翫翫하야 : 산들산들 불어서.
- * 兩兩腋익 : 양쪽 겨드랑이.
- * 추혀 드니 : 추켜드니
- * 九구萬만리리 長당空공 : 머나먼 하늘.
- * 저기면 : 웬만하면.(부사)
- * 놀리로다 : 날갯도다.
- * 四스海海 : 온 천하. 온 세상.
- * 고로 논화 : 고루고루 나누어.
- * 億億萬만蒼蒼生生 : 온 백성.
- * 밍근 後후 : 만든 후에. (기)밍골다.
- * 亨샷고야 : 하자꾸나.(청유형)
- * 말 디자 : 말이 끝나자.
- * 九구空공 : 구만리 장공의 준말.
- * 玉옥簫소 소리 : 옥통소 소리. 바람 소리의 미화법.
- * 바다홀 : 바다를. 바다ㅎ(ㅎ받침 체언)+울(목적격 조사)
- * 기피를 : 깊이를.
- * 明明月월 : 여기서는 임금의 은총.
- * 千천山山 萬萬落낙 : 온 세상.

■ 해설 1

이 가사는 송강(松江)이 45세 되던 때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내(內), 외(外), 해(海)금강과 관동팔경을 유람한 후 그 여정의 아름다운 경치와 고사(故事), 풍속 등을 읊은 작품이다. 활달한 분위기, 낭만적인 서정이 넘치고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낸 기행가사이다. '산'과 '바다'에서 필자는 양면성(위정자로서의 모습,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 인상적이다. 따라서 구절들의 함축적 의미를 새기며 읽으면 좋을 것이다. <관동별곡>의 주제는 연군 우국과 신선류의 풍류, 두 가지로 이해된다. '연군 우국'은 언뜻 생각하면 이는 '신선류의 풍류'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신선류의 풍류가 속세를 벗어나는 것이라면 연군 우국하는 정치현실은 세속적인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강에게 있어서 신선류의 풍류와 연군은 다 함께 소망스러운 덕목으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신선류의 풍류는 현실 도피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참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신선 사상은 현실 정치의 고단함을 잠시 잊고 다시 정치에 열중할 수 있는 활력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 해설 2

이 노래는 금강산과 동해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느낀 것을 노래한 기행 가사이다. 그러나 이 노래는 일종의 기행문이면서도 기행문 이상의 감동을 준다는 데 진정한 가치가 있다. 송강 정철의 빼어난 가사 작품의 하나인 이 작품은 단순히 기행에 따른 견문과 색다른 경험 속에 연군의 정과 선유(仙遊)의 꿈을 융화시켜 보여 주는 것 이외에도, 특히 인간 내면의 갈등과 그 해소 과정을 함축적으로 잘 드러내었다는 데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고 있다. 특히 <관동별곡>에서 갈등의 양상과 극복은 자연에의 몰입, 도취를 추구하는 도교적 신선 지향과 충의, 우국, 애민 등을 지향하는 유교적 충의 사상의 대립과 갈등을 드러내지만 도교적 신선 지향성은 연군의 정, 애민 사상, 우국적 감정에서 연유된 관찰사의 소임에 대한 강한 자각에 의하여 극복되고, 송강의 빼어난 경치 묘사의 특징은 생략과 비약에 의한 비약적인 전개, 역동적인 움직임의 포착에 의한 박진감 있는 경치 묘사가 특징이다. 대표성을 가진 하나의 사물만으로 전체의 상황을 독자로 하여금 상상케 하고 과감한 생략과 압축된 표현으로 박진감을 자아낸다.

■ 해설 3

1580년(선조 13) 정월 작자가 45세 때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내·외·해금강(內外海金剛)과 관동팔경(關東八景) 등의 절승(絶勝)을 두루 유람한 후 그 도정(道程)과 산수·풍경·고사(故事)·풍속 및 자신의 소감 등을 읊은 노래로, 조선시대 가사 가운데서도 대표작으로 손꼽을 만한 백미편(白眉篇)이다.

음률이 주로 3·4조로 이루어진 이 가사의 용어는 비교적 순수한 우리말이 많고, 비록 한문어휘라 하더라도 대개 우리말화한 것들이다. 또한 이 가사는 파란이 심하였던 작자의 관직생활에서 비교적 득의(得意)에 찼던 시절의 작품인 만큼 전체의 분위기가 웅장하고 명쾌하여 화려체의 문장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색이다. 특히 대구법(對句法)의 묘를 살리면서 감탄사를 적절하게 적용(疊用)하고 생략법을 알맞게 구사하는 등 능란한 수법은 송강의 빼어난 문장의 경지를 남김없이 보여 주는 대목이다.

전편(全篇)을 크게 4단(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1단은 강원도 관찰사로 제수된 감격과 임지로 부임하는 모습을 엮은 서곡(序曲)이고, 제2단은 내금강의 절경을 읊은 노래이며, 제3단은 외금강·해금강과 관동팔경의 절경을 읊은 노래이며, 제4단은 작자의 풍류를 꿈

■ 참고 1 - 작품 속에 나타난 주인공의 여정

- (1) 부임과 관내 순력 : 전라도창평→한양(연추문, 광화문)→평구역(양주)→흑수(여강)→섬강·치악(원주)→소양강(춘천)→동주 북관정(철원)→회양
- (2) 금강산 유람 : 백천동→만폭동→금강대→소향로→대향로→진혈대망고대→혈망봉→개심대→중향성→비로봉→사자봉→화룡소→마하연→묘길상→안문재→불정대→십이폭포→산영루→금난굴→
- (3) 관동팔경 유람 : 총석정→삼일포→의상대→경포→죽서루→망양정→달맞이→꿈

■ 참고 2 - 북한에서 바라보는 <관동별곡>

북한에서는 북한 사회의 내부적 요구에서 일찍부터 <관동별곡>을 높이 평가하여 왔다. 이 작품이 조국 산천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정과 탁월한 언어 표현 기법을 구사하였다는 점에서 중시하고 있는데, 뒤의 것은 물론 정당한 평가이다. 앞의 것 역시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민족적 자부심은 아름다운 조국에서 행복을 누리려는 시인의 이상과도 연결되어 있고, 또한 조국의 미래에 대한 시인 자신의 낭만적 지향과도 결합되어 있다”는 견해는 작품의 실상보다 과대평가하거나 확대 해석한 것이다. 이 작품의 시적 자아는 현실 초월적인 신선세계로의 지향조차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은 정철 개인만이 아니라 당대 사대부들의 자연관과도 관련이 있다. 그런데 북한 문학사는 이러한 낭만적 지향은 조국애로 긍정하면서 정작 충군 사상으로 표현된 조국애 또는 대민 의식은 그 외피인 충군 사상을 본질적인 제한성으로 비판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가사 <관동별곡>에는 정철의 다른 가사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충군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바로 이 충군 사상 때문에 작품에서 노래한 민족적 긍지감과 시인의 이상이 인민적인 것으로 울리지 못하고 있다.<관동별곡>에서는 또한 금강산을 노래하는 서정적 주인공의 정서 상태가 양반들의 한가한 유희적 기분과 결부되어 노래된 제한성도 있다.”

이러한 비판은 <관동별곡>에 나타난 국토 예찬을 전체적 맥락에 관계없이 부조적 수법으로 강조하여 민족적 긍지 등으로 확대 해석한 결과의 반작용으로 보인다. 오히려 <사미인곡>을 평하면서 “임금에 대한 충정을 노래한 밑바닥에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다함없는 사랑이 밑받침되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식을 좀 더 섬세하게 발전시켰어야 했다. 충군 사상과 조국애, 인민에 대한 사랑이 상호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도외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물론 문학사의 발전적 전개과정에서 작가와 작품의 진보적 의미와 제한을 엄밀히 따져야겠지만 제한성은 그것이 어떤 작가, 작품을 막론하고 그 당시 지배적이었던 봉건적 이데올로기인 한, 개별 평가에서 새삼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작품의 미의식

- 우아미 : 고상함과 순수함을 추구하는 아름다움으로, 자연의 조화에 순응하는 태도, 대상과의 친화 동화 태도로 나타난다.
- 숭고미 : 가치 있는 사상을 현실에서 구현하고자 할 때 생기는 아름다움으로, 부조리에 저항하거나 모순된 상황에 맞서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 비장미 :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좌절될 때 나타나는 아름다움으로, 슬픔이나 고통, 절망 등의 감정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경우에 나타난다.
- 골계미 : 인물을 회화화하거나 진상을 밝혀내는 데서 비롯되는 아름다움으로, 주로 풍자와 해학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 화자 :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내금강과 관동팔경을 유람하고 있다.
- 정서-태도 : ① 활달하고 낭만적이며 □□한 기상이 드러나 있다. ② 연군지정, 우국지정, □□□□, 애민정신을 지니고 있다.
- 바탕 사상 : 유교적 충의 사상, 도교적 신선 사상에 바탕하고 있다.
- 시상 전개 : 시간과 여정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 서 : 관찰사 부임
- 본 : 1) 금강산 유람 : 만폭동(폭포) → 금강대(학) → 진혈대(산봉우리) → 개심대(산정기) → 화룡소(연못) → 십이폭포(폭포) → 동해로 가는 길
2) 관동팔경 유람 : 총석정(정자) → 삼일포(신라 화랑) → 의상대(해맞이) → 경포대, 강릉(호수와 미풍양속) → 죽서루(태백산 경치) → 망양정(파도)
- 결 : 동해안 달맞이 → 꿈 속의 선연

■갈등의 양상과 극복 : 작자는 관찰사로서의 공적인 임무와 자연을 즐기고 싶은 □□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신선과 만나는 꿈속에서 해결되고 있는데, 술을 먼저 모든 백성에게 고루 나누어 마시게 한 후에 다시 만나 또 한 잔을 하겠다는 말 속에는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과 자신의 회포를 풀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드러나 있다.

■공간의 이동과 작자의 내면 변화 : ‘산’에서 ‘바다’로의 공간 이동이 나타나 있다. 산에서는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열망, 즉 □□□□에서의 책임감을 주로 나타내고 있다. 바다로 접어들면서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내면 세계로 향하는 전환을 보이고 있다. 즉 산에서는 산의 경치를 노래하되 신하로서의 직분, 목민관으로서의 의무감을 저버리지 않았음에 비해, 바다에 와서는 사회적인 의무보다는 현실을 초월하고 싶은 개인적 욕망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 넘치는 경치 묘사 : 생략과 비약에 의한 전개, 역동적인 움직임 포착에 의한 박진감 있는 경치 묘사가 특징이다. 서경과 서정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문체 특징 : 명쾌하고 화려하며 우아하고 섬세한 가사체의 문체이다.

■율격 : 3(4).4조 4음보가 연속된 운문체다. 규칙적 언어 배열을 통한 율동감이 느껴진다.

■주제 : 내금강 및 관동팔경 유람

■□□□□ 넣기 답 : 호방(호탕), 선정 포부, 풍류, 목민관, 박진감